

1850년 개교 ... 노벨상 수상자 2명 배출

호주 시드니대학교 (Sydney University)

1850년 호주에서 최초의 대학으로 문을 연 시드니대학교는 4천여명의 교직원과 3만여명의 학부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는 명문대로 4백5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비롯해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11개 지역에 3백17개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7월에는 제3회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회의가 이곳에서 열려 1백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91년에는 한국어학강좌도 개설되어 현재 1백40여명의 수강생이 언어 문학 및 역사를 배우고 있다.

李相億

(호주 시드니대학교수/한국학)

호주의 가장 큰 도시 시드니의 도심에 바로 접해 있는 시드니대학은 1850년에 호주의 첫번째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95년 말 현재 2천90명의 교수진, 2천7백61명의 전담직원 그리고 7천6백32명의 대학원생, 2만2천2백60명의 학부생이 있다.

석사과정 중에서 9백52명은 연구 및 논문작성만으로, 2천8백64명은 coursework 및 논문작성으로 학위를 받고 1천5백44명은 소위 Graduate Diploma만 받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도서관 장서 4백50만권

단과대학들로는 농대, 건축학부, 인문대, 컴퓨터학부, 치대, 경상대, 교육대, 공대, 보건대, 법대, 의대, 약대, 음대, 간호대, 심리학부, 자연과학대, 사회사업학부, 수의대, 미대 등이 있다.

교과과정은 환경공학으로부터 호주 원주민 연구까지, 해양학부터 중등고교학에 이르기까지 실로 질 높은 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또 한국어, 한국문학, 역사 등의 강좌도 개설되어 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대학도서관은 4백50만권의 장서가 있다. 부속연구기관



▲ 제3회 환태평양 한국학대회 개막식에서 필자(좌에서 네번째)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들에는 풍동(風洞), 전자현미경, 광섬유기술, 생명과학실험실 등 첨단시설이 갖춰져 있다.

부설기관으로 시드니 음악원(conservatorium)은 음대의 기능뿐 아니라 각종 공연으로 인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명소가 되어 있다.

또 역시 도심에 있는 현대미술관은 미대와 연계되어 각종 전시를 주도하는 관광지로 이름나 있다.

古風스런 본관 등 英國風으로

대학의 학사기구는 부총장(호주대학들은 상징적인 총장 밑에 실질적 총장인 부총장이 있음) 아래에 4개 학문분야별 부총장보가 있어 행정을 돕고 있다.

4개 분야는 자연과학부, 전문학부, 의학부, 인문학부로 나뉜다. 자연과학부에는 농학, 자연과학, 수의학, 정보기술분야가, 전문학부에는 건축학, 경제학, 공학, 경영학, 법학분야, 의학 분야에는 치의학, 보건학, 의학, 간호학이 그리고 인문학부에는 인문학, 교육학, 음악, 미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과학기술」에 관계되는 분야의 그 소속학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농학 : 농화학 및 토질과학, 동물학, 농작물 과학, 미생물학, 식물학
 ②자연과학 : 해부조직학, 생화학, 영양학, 생태학, 화학, 컴퓨터과학, 지리학,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과학사 및 과학철학, 해양학, 수학 및 통계학, 약학, 약리학, 생리학, 물리학, 심리학
 ③수의학 : 동물건강, 낙농학, 양계학, 수의학해부학, 해양동물학, 수의 병리학
 ④건축학 : 건축, 디자인, 도시 및 지역계획
 ⑤공학 : 항공공학, 화학공학, 토목 및 광산공학, 전기공

학, 기계 및 기계 전자공학 ⑥치의학 ⑦보건학(이하 세부생략) ⑧의학 ⑨간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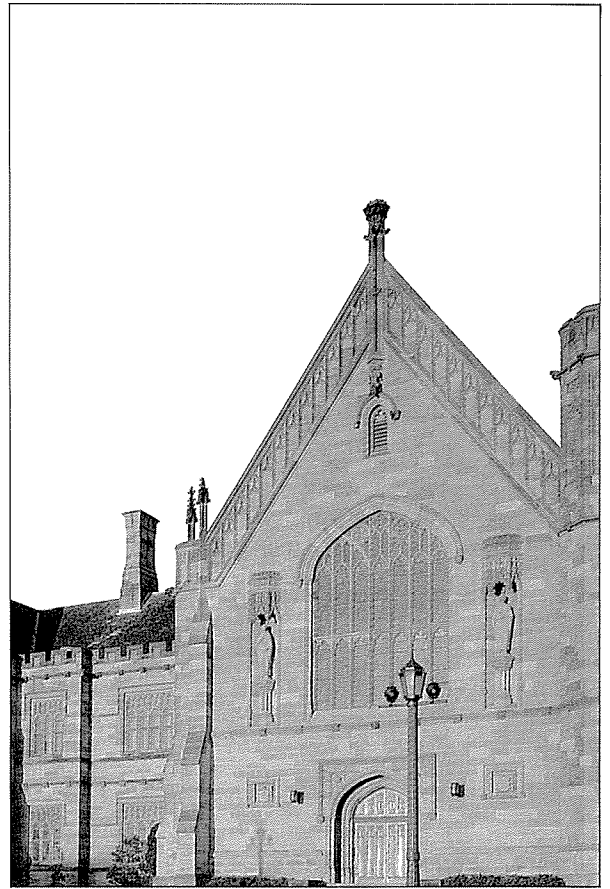
대학 캠퍼스는 시드니 도심을 포함해 11개 지역에 3백17개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고풍(古風)스러운 본관 및 몇몇 옛 건물들은 영국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본따서 지은 것이라 한다.

실제로 본관 대강당이나 연회장(MacLaurin Hall)을 보면 내부벽과 천정 장식에 영국 각 대학의 문장(紋章)들이 새겨 있다.

시드니대학 휘장에도 케임브리지대학을 상징하는 사자와 옥스퍼드대학을 뜻하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호주인들은 개척 초기에 영국을 동경했고 그 쪽 전통을 이어받은 점을 드러내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 대한 동경은 세계 제2차대전 이전까지는 압도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나, 그 이후는 미국의 영향과 특히 8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동경이 급격히 자리잡고 있다.

아직 국가나 정치제도 등에 영국풍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워낙 경제적으로 일본에 크게 의존하게 된 이후



▲ 시드니대 본관 정경

그 문화에까지 유행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도 과거 영국쪽으로 유학가던 방향을 미국·일본쪽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드니대학은 외국에서 우수한 교수들을 끊임없이 유치해 오고 있어, 1955년에도 옥스퍼드대학에서 기계공학(mechatronics)전공의 Hugh Durrant-Whyte교수를, 미국 코넬대학에서 수의학전공의 Brian Farrow 교수 등을 영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재직해 온 교수들 중에도 주요한 학자들이 많아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일류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가령 토목공학을 예로 들면 John Booker, Harry Poulos, Greg Hancock교수들의 활동이 두드

러진다.

연구기관들도 나날이 증강되고 있어, 1995년에 교통문제연구소와 전자현미경 및 미세분석연구소가 세워졌다. 또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Multimedia Center도 세웠고, 질소고정연구소를 프랑스의 파스티르연구소 및 중국의 산둥대학 농업연구진과 협력하에 창설하였다.

자력장연구소, 소아의학연구소, 신경생리학연구소 이외에도 2천년 시드니올림픽을 대비한 운동의학연구소, 세계 최대의 북동부 산호초지역에 대한 현지 연구소, 양 목축에 대한 제반 문제연구소도 개설하였다.

그밖에도 보건학, 의학, 공학, 오페라 공연을 위한 연구를 포괄하는 국립 음성(voice)연구소, 질병분류를 위한 국립코딩(coding)연구소 등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래 호주 대학들은 모두 국립이며 연간 교육연구비 2억달러를 대고 있다.

산학협동 분야도 강조되고 있어 산학연계(Business Liaison)사무소를 통해 연간 7백만달러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외부로부터 연구비 총액은 7천만달러) 95년에 88건의 특허가 취득되었고, 1백78건의 자문 및 시험 계약, 24건의 연구프로젝트 및 28건의 기술개발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농대와 곡물취급회사 간에 밀·목화 재배에 대한 연구개발 협약이 연구소와 회사 공동체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근래 과수원 일대를 위협한 과일파리(Fruit Fly)에 대한 연구소, 해안지대연구소, 해양연구소, 항공연구소, 항공물리학연구소, 분자생물학연구소, 중합체(Polymer)연구소, 광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유학생 1천6백여명 재학

국제사회에 대한 접촉에도 주력하여 95년에는 1천5백90명의 해외 유학생이 등록하여 2천만달러의 등록금이 유입되었는데 82개국 가운데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이란, 태일랜드가 큰 집단을 이루고 있다.

영어교육센터가 국제부(International office)와 관련하여 운영되어 95년에 9백60명이 수료하였다. 매년 40명 가량의 시드니대 학생들이 세계의 유명한 대학과의 교류계획으로 유학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밖에도 시드니대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주력하고 있어서 1천개의 강좌를 개설한 평생교육원(Centre for Continuing Education)에 약 2만명을 수강시키고 있다. 교내의 고대 회람 로마 박물관(Nichoison Museum)은 호주에서 가장 좋은 고고학 박물관이고, 동물 및 인류학관계 박물관(Macleay Museum)은 백만개 이상의 견본을 갖추고 있다. 교내 미술관에서는 한국에서 온 탐본 전시를 계획중이기도 하다.

한국학 관계의 현황을 잠시 소개하면 1991년에 어학강좌가 개설된 이래, 2명의 전임과 4명의 시간강사가 현재 1백40명 정도의 수강생에게 언어, 문학,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3만5천명 쯤되는 한국교민들이 시드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그 2세의 교육도 맡고 있는 셈이다. 호주에서 필자가 1980년 처음 한국어를 가르친 이래 한국학 관계로는 가장 큰 행사가

96년 7월1일~4일에 시드니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즉 '제3회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회의'(조직위원장 : 이상억)가 열려 1백30편의 논문이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에 걸쳐 발표되었다. 아울러 기념 한국 풍경·풍물 사진전이 개막(사진참조)되었다.

서울대 등 4개 대학과 자매결연

시드니대학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들은 우선 노벨상을 받은 John Cornforth경(1975, 화학상)과 John Harsanyi교수(1994, 경제상)가 있다. James Wolfensohn은 세계은행(World Bank)총재이고, Robert May경은 영국 수상의 과학자문 주역 교수로 있다.

William Deane경은 현재 호주 총독이며, John Howard는 현재 호주 수상이다. 과거 Gough Whitlam도 수상이었다. Joan Sutherland 같은 오페라의 대가수가 나왔고, Clive James는 TV에 자주 나오는 진행자 겸 작가다.

Paul Scully-Power박사는 우주비행사로 뽑혔다. 한편 세계의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한국의 대학들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가 자매학교로 되어있다. 말레이시아의 페낭에는 현지에서 1학년 과정을 가르쳐 2학년 초에는 시드니대로 진학시키는 일종의 분교도 있다.

시드니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는 국제부(전화 61-2-9351-4161/4079 FAX : 61-2-9351-4013 E-mail : Info@io.usyd.edu.au)로 연락하면 된다. ㉔